



봉은사 재정 공개 등 사찰 투명화 첫 발

올 한해 종교계에 대한 과세와 재정 투명화 요구가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종교법인법 제정을 통해 종교계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듯,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8월 재무제표를 공개해 각계의 환영을 받았고, 이어 12월에는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사찰의 1년 재정을 일반에 공개해 불교계에 사찰 재정 투명화 바람을 불어넣었다.

봉암사 결사 60주년 법회 자정노력 천명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성철 청담 자운 스님 등이 일으킨 봉암사 결사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10월 19일 문경 봉암사에서 열린 결사 60주년 기념법회는 조사들의 뜻을 잇는 한편, 현재의 종단 상황을 참회하는 장(場)이 됐다. 법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조계종단 안팎에서 불어닥친 각종 비리와 사건에 대해 참회를 통한 자정을 결의했다. 또한 ▲입체의 명리를 버리고 본분에 충실하며 ▲수행을 생활화·사회화하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할 것 등 3대 실천지침을 제시해 불교계의 자정 노력을 천명했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성보 관리 청신호

3월 26일, 2000만 불자의 염원을 담아 불교중앙박물관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에 개관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문화재를 통한 불교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대부터 통도사 성보박물관 건립으로 시작된 사찰 성보박물관 건립 열기는 1995년 송광사 16국사 영정 도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각 지역 교구본사 중심 30여개의 성보박물관이 지방 중심의 사찰 소장 성보문화재의 전시와 보존, 수집 등에 치중해 지역거점 박물관으로 성장했다면,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은 지방 성보박물관의 특성과 취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성보 관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경주 남산 마애불 발원 등 굵직한 성과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굵직한 성과들도 쏟아진 한해였다. 지난 5월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는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국보급 마애여래입상이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무게 약 70톤의 화강암(약 250×190×620cm)에 새겨진 마애여래입상은 불문 있는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에서 느껴지는 엄숙함이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임을 보여준다. 또한 10월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친 사명 대사(1544~1610)가 지냈던 금동호신불과 목서사 포함 대서사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도 석가탑 2층 탑신석 사리공에서 발견됐던 '목서지판'이 발견 41년 만에 해독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작시기가 통일신라시대임이 재증명되는 등 불교문화재 관련 희소식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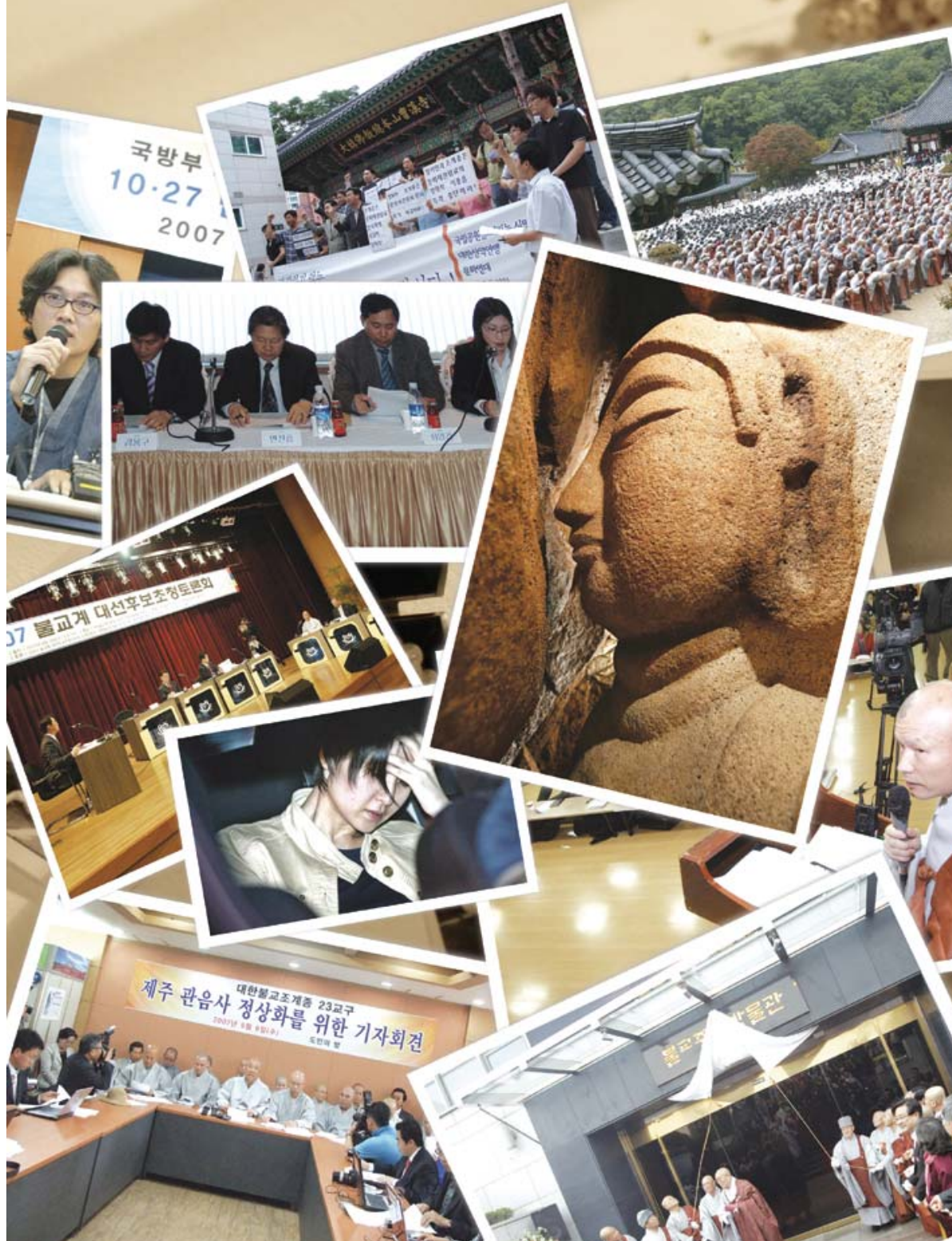
불교정책기획단 출범 및 대선 초청토론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불교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 스님·김응철)'이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공동 기획으로 발족했다. 6월 26일 출범한 불교정책기획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당면현안 및 과제를 총 13개 분야로 선정·정리한 <2007 불교정책자료를집>을 발간했다. 불교정책기획단은 이를 주요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11월 21일 '2007 불교계 대선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날씨'로 본 2007 불교계

'위기...참회...도약'의 한해

2007년 불교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학력위조로 시작된 '신정아 사건'은 불교계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는 조계종단내의 '당파싸움'으로 불거졌고, 언론은 불교계와 변양군 前 청와대 기획실장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왜곡 보도를 쏟아냈다. 또한 제주 관음사와 공주 마곡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도 불교계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불교계는 10월 19일 봉암사 결사 60주년 법회를 통해 자정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내의 목소리를 모을' 불교정책기획단'이 창립하고, 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한 것을 비롯해 서울 봉은사의 재정공개로 이어진 사찰 재정투명화 바람은 그나마 불자들을 미소짓게 했다. 한해 불교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과 성과를 기상도로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하린 NEWS

사찰 문화재관리로 논란 지속

올 한해 불교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문화재관리로 징수 문제였다. 정부가 1월 1일 국립공원입장료를 일제히 폐지했으나,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리료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리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는 한편, 구별 천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는 정부에 사찰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정부는 불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관리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찰중점규제, 내년에는 해소될까?

사찰에 대한 중점규제는 완화될 수 있을까? 전통사찰의 개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국가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월 14일 전통사찰관련국가법령개정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올 한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이끌었다. 추진위는 6월 '불교규제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이끌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또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므로, 향후 어떻게 규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27 법난 조사결과 발표·특별법 추진 중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 25일, 10·27 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국민 및 대다수 불교신자들은 과장 왜곡된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비하의 온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불교계는 과거사위의 조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11월 15일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천동번개 NEWS

조계종 잇단 악재...종단청정위 구성 요구

조계종은 그 어느 해보다 잇단 악재로 곤욕을 치렀다. 제주 관음사에서는 주지 선출을 둘러싸고 물러진 총독을 빚었고, 이는 여과 없이 공중과 방송에 보도돼 불교계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또한 마곡사 前 주지는 '국교황령 및 사찰주지 품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불교계 시민단체 12곳은 조계종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을 조계종에 제안했다. 하지만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오던 교단자정센터는 12월 12일, 조계종의 무성리한 대응과 의지부족을 이유로 자체적인 교단부정배척센터를 개소해 운영할 것임을 밝혀 향후 조계종과의 피지 못할 대립이 예상된다.

신정아 학력위조, 불교계로 불통

대한민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동국대 신정아씨 학력 위조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스캔들이었다. 6월 초 동국대 前 이사 장윤 스님이 처음으로 신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가 가져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7월 4일 신씨가 '2008광주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되자 의혹이 급물살을 탔다. 언론의 집요한 추적 끝에 신씨의 학위가 전부 허위로 드러나고 변양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면서 사건은 '권력형 비리'로 급반전됐다. 또한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실태가 속속 드러나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불교계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온 '신정아 스캔들'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초·중·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부속삼학학교)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생활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학불교학림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승우(명지대)
- ▲박영문(영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 ▲황진영(유성여고) ▲이정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 전 대 한의대학

삼학불교 대학림

한국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